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손정원* · 이후빈**

1990년대 한국에서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을 무렵, 국내에는 이론적 기반이 매우 약했으므로 영어권 이론의 수입과 적용이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당시 영어권 지리학, 도시계획, 환경학 등의 분야에서 비판적 이론들이 활발하게 생산되었는데, 한국의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자들은 그 저변이 넓지 않아 해외의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따라잡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간환경학회와 그 전신인 공간환경연구회 회원들을 비롯한 한국의 신진연구자들이 해외의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적용을 시도함으로써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30년이 지났고, 연구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자본주의의 급격한 변화는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비판할 것이고 새로운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본원적 고민을 불러일으킨다.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과 시장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의 세계적 확산으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에 대해 논할 정도가 되었지만,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케인지안 복지국가가 복원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의 목표는 신자유주의 이전 체제의 복원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상상해 온 자본주의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들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유효한가? 그리고 새로운 개입주의는 사회의 진보적 변화

* 런던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부교수(j.sonn@ucl.ac.uk)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조교수(hoobin@kangwon.ac.kr)

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또한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의 제도화·주류화도 우리가 겪은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영어권 인문지리학, 도시사회학, 도시계획학에서 비판적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이론적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의 일이다. 학계의 분위기가 보수적인 한국에서는 이론적 주도권을 잡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류 대형 학회에서 정치생태, 도시정치, 지정학, 비판적 주택연구, 성적·민족적 소수자 연구, 페미니즘적 도시 연구 결과물들이 발표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비판적 연구자들이 다루던 주제를 주류에서 다루게 되었으니 비판적 연구는 그 소명과 수명을 다한 것인가?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의 주류화·제도화는 그동안 비판적 경향을 견지해 온 연구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고 본다. 하나는 이론의 주류화·제도화에 몸을 실어 함께 주류의 일부가 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비판적 연구가 보지 못한 부분을 찾아, 계속 주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길이다. 이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다. 후자 쪽이 비판적 연구자의 정신에 더 잘 맞는 길이겠으나, 전자의 길도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비판적 비전을 부분적으로라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두 선택지와 본원적 고민이 교차하는 이 갈림길에서 한국의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점검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공간환경학회는 2023년 11월 추계학술대회에서 기획세션을 마련하였고, 이번 호 특집 세 편은 그 기획세션에 발표된 논문들 중 일부이다.

먼저 박인권·김승정·최호권의 「한국의 포용적 도시계획 담론의 변천 과정 분석」은 한국의 포용적 도시계획 담론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포용적 도시계획 담론의 확대·발전은 국가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주도하였고 일부 포용적 계획 담론들이 제도화되어 한편으로는 도시계획을 철학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급진성을 상실하는 결과

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고 진단한다. 저자들은 또 포용적 도시계획 담론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원적·관용적인 공론장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음으로 이승욱의 「다중위기의 시대, 한국 지정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은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정학을 다루고 있다. 국내 비판지리학자들이 그동안 페미니스트 지정학, 도시지정학 등 새로운 지정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이제 상당한 수준의 연구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경향을 더욱 강화하여 기존 주류지정학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배적인 지정학적 질서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두 논문이 각각 도시계획 담론과 지정학에서 비판적 관점이 점차 강화되어 온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달리, 손정원의 단보 「진보적 지역발전론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는 비판적인 지역발전 연구가 점차 퇴조하고 있는 암울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90년대에 비판적인 지역발전 이론들이 그 이전 이론들에 비해 비판적이지 못했으며, 그마저도 2000년대에 들어 퇴조하여 현재는 비판적 지역발전 이론이 영어권에서나 한국에서나 뚜렷한 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기존 연구들의 기본적인 전제들부터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을 때에만 한국의 비판적 지역연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객원편집인으로서, 본 특집에서 비판적인 공간환경 연구의 많은 분야들을 다루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정치생태, 도시문화, 주택, 소수자 등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지 못했다. 이런 주제의 논문들이 향후 《공간과 사회》에 차례차례 실릴 것이라고 믿으며, 이번 특집호의 논문들이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자들 사이에서 진지한 토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